

‘먹방’과 생각하는 일

강지윤(외부참여연구원, 국문학연구자)

저명한 영어사전인 콜린스 사전에서는 매년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 행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가 2020년 콜린스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한국어 ‘먹방(Mukbang)’이 그 중 하나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위는 ‘록다운(Lock down)’이었고 ‘자가격리(Self-isolate)’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어들이 대체로 상위를 차지했는데 한국어 단어 ‘먹방(Mukbang)’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단연 눈에 띕니다.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거둔 엄청난 성공으로 ‘K-콘텐츠’ 흥행 가도는 지속 중이죠. 한국형 인터넷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는데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먹방은 ‘K-콘텐츠’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먹는 모습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서구사회에서도 통하는 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놀랄만한 일입니다. 먹방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의 만족을 잡아냅니다. 먹방은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의 만족감과 행복이 얼마나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내는지를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먹방의 또 하나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를 바라는데, 한정된 러닝 타임 안에 바로 그 욕망을 실천하는 것이죠. 즉 먹방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자 함’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전제에는 다른 생각이 딱히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 부쩍 응원이나 위로의 말을 이렇게 대신하곤 합니다.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복잡한 세상사를 생각하는 일로부터 일단 잠시 벗어나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입맛이 없기로 주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도 어쩌다 먹방을 보고 있자면 먹는 사람의 저 명확한 행복에 동화되면서 복잡한 머릿속이 누그러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먹방의 인기가 식도락에 대한 인기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하지 않기’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먹방’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른 한편 ‘먹기’란 ‘생각의 장(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출의 가장 커다란 원인 중 하나가 먹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인간들의 육류 소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이 자동차, 선박, 항공 등의 이동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 이제 꽤나 상식화된 지식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육류 소비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공장식 축산에 의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20년 전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광우병 사태’에 이 공장식 축산 문제가 핵심에 놓여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19의 기원이기도 한 ‘인수공통 감염병’의 문제에도 공장식 축산 문제가 늘 거론됩니다. 공장식으로 육류용 동물을 키우고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엄청난 양의 곡물 사료는 대규모 농업을 통해 재배되는데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림 훼손과 수자원 소모, 토양 오염이 뒤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에게 먹일 대두를 경작하기 위해 아마존의 정글을 인공적으로 밀어버린 모습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것이 개발 정책 일변도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후원 아래서 이뤄진 것

이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지요.

사실 먹는 일에 이제 무엇보다 생각이 앞서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일이 환경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실천 중 하나라는 말은 더 이상 몇몇 과도한 환경론자들의 외침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 캠페인 차원의 문제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먹거리 앞에서 멈칫하게 만드는 일은 당연히 불편한 일입니다. 최근 이슬아의 「비건의 절망과 희망에 대하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건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굳건한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반대로 비건 실천이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삶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게으름이나 충실하지 못함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삶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먹는 일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버린 셈입니다.

저는 훨씬 더 게으르고 충실하지 못한 가운데 먹거리 앞에서 생각만 많은 사람에 속합니다. 일단 케이지 프리(Cage-Free) 육류를 먹음으로써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정도로 살다가 조금씩 육식을 줄여나갔지만 매우 들쭉날쭉한, 일관성 없는 식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붉은 고기를 최소화한 삶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건 지향과 약간 다른 말로 육식 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육식을 줄이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양한 베지터리언 실천에 여러 단계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비건(Vegan)이 있고, 유제품을 먹는 락토(Lacto) 베지터리언, 달걀(Ovo)을 먹는 오보 베지터리언 어류를 먹는 페스코(Pesco) 베지터리언, 닭까지 먹는 폴로(Pollo) 베지터리언도 있고요, 채식으로 살다가 가끔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erian)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합리화의 구실(!)을 미리 만들어놓고, 들쭉날쭉한 식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역시 과학은 발빠르게 놀라운 일들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곤충의 식품화, 배양육의 개발, 사막화가 심한 지역의 수자원 정수 및 개발 문제 등은 과학자들의 활약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반면 인문학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기에 대해 생각하는 일, 먹기에 앞서 생각하는 일, 먹기에 연결된 생각들의 고통을 공유하는 일 같은 것 말이죠.